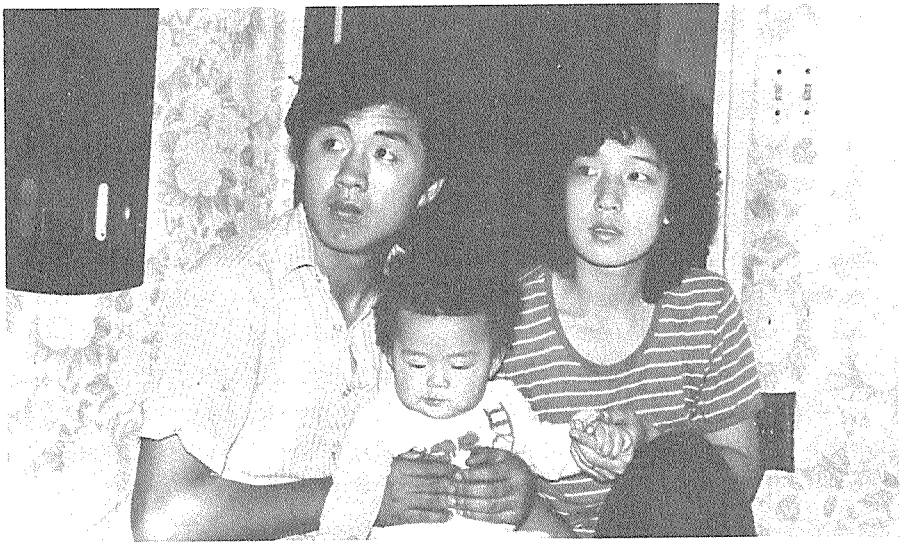

『아이들의 건강이 우리집에선
제일 큰 재산입니다』

아빠 최원호
엄마 박정미
아들 최장근
딸 최 선

이제 막 다가오기 시작한 봄내음의 상큼함을 호흡하면서 이는 아침의 거리를 걸어 기자는 신답십리 삼희 APT 2동 506호 최원호씨 댁을 찾아갔다. 맑은 종소리 속으로 초인종의 음향이 사라져 버린 후, 현관문을 열어준 사람은 이제 막 출근할 채비를 끝마친 최 원호(27세, 상평통상상무)씨였다.

『어서 오세요.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셨읍니까?』하며 인정이 가득찬 인사로 맞아주는 최원호씨 가족의 훈훈하고 소박한 웃음 덕분에 아직은 쌀쌀한 아침의 냉기를 말끔히 씻어버릴 수 있었다.

따끈한 녹차 한잔씩을 앞에 놓고 앉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가장 신경써야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무엇보다도 정확한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생활 하다보면 식사시간을 그냥 넘겨버리는 일이 잦은 것 같읍니다. 소화불량이니 간기능 장해니 하는 병들은 불규칙한 식사생활에 과음을 하기 때문에 생기죠, 평소에 조금만 신경쓰면 공연히 병원신세를 져야 하는 불상사는 없지 않겠어요?』라고 부인 박정미(26세, 주부)씨는 힘을 주어 대답하면서 『애들 아버지 하시는 일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야 하는 일이고, 또 자주 외국인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지나 않는지, 과음하지나 않는지 늘상 걱정이 되요. 말로는 항상 상기시켜 드리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그만둘 수도 없고……』라고, 조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군 최원호씨를 바라보면서 덧붙였다.

『그래도 가끔씩 좀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간단한 검사를 해보는데, 아무 이상 없읍니다.』 부인 박정미씨를 안심시키려는 듯 최원호씨는 소박한 웃음과 함께 한마디 해주었다.

아이들에게도 때맞춰 식사하도록 계획해서 신경을 쓰고,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지 집에서나마 자주 체크해 주고 있다고 아이들의 건강관리에 관해서 박정미씨의 말에 이어, 부군 최 원호씨는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입니다. 제 생각엔 아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읍니다. 우습게 들릴런지는 모르지만, 특히 유아기 정도의 아이들에게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뛰고 싶을 때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나치게 규칙적인 생활, 깔끔한 환경을 강요하면 오히려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라고 나름대로의 어린이 건강관리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

취재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 필자에게, 『잊을 뻔 했읍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식은 우유예요. 우유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 나이 이후부터는 우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잊지말아 주십시오.』라고, 최원호씨는 농담같은 진담을 한마디 던졌다.

〈이은희 글〉